

해남군 “고속도로, 철도로 간다” SOC 구축 착착

광주~북평~완도 고속도로 추진·2024 첫 철도 개통 순항 “서남부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만전”

해남군의 대규모 SOC 사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서남권 교통중심지 해남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1단계 구간인 2023년 사업비로 1,780억원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

광주 서구~강진 성전 51.11km 구간인 1단계 사업은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2단계 사업인 강진 작천에서 해남 북평 구간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가운데 군은 1단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은 총연장 88.61km,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약 3조 4천억 원이 소요되며, 광주 서구 벽진동~강진 성전 1단계, 강진 작천~해남 북평 2단계(37.5km)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해남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해남~광주간 소요시간이 40분 안팎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가 땅끝까지 이어지는 남북구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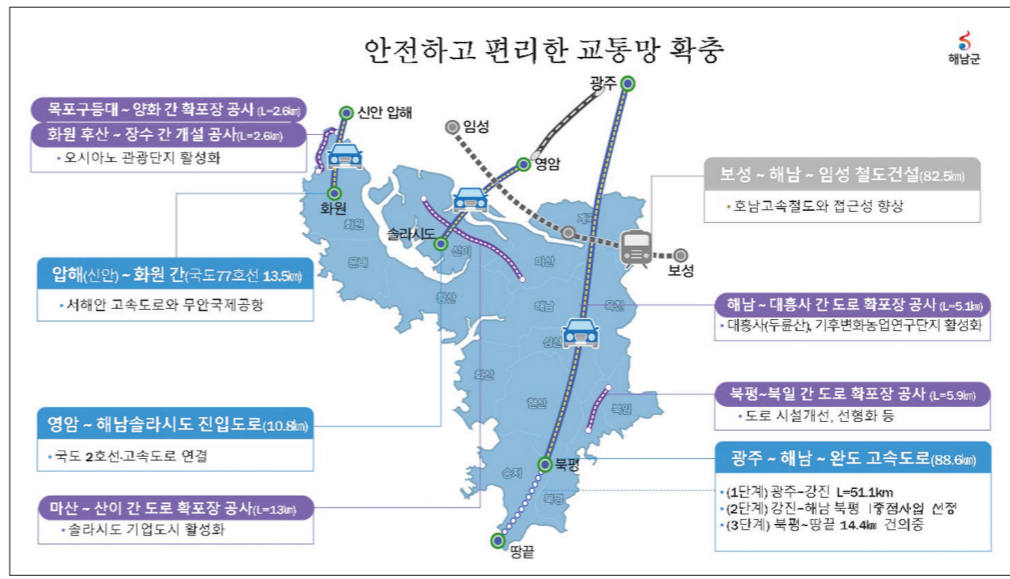
잇는다면 해남 최초의 철도는 동서구간을 연결하게 된다.

1조 6,3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성~해남~목포 임성 82.5km를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가 2022년 12월말 기준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해남구간은 12.54km로 터널 4개소와 교량 3개소 등 노반공사와 함께 계획면 학리에 기차역이 들어서게 된다. 전철화 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2024년 해남에서는 처음으로 철도길이 열리게 된다.

군은 땅끝해남역이 지역 관광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색에 맞는 역사 디자인을 반영하는 등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철도건설이 완료되면 보성~목포 소요시간이 현재 2시간 9분에서 50분으로 79분 단축되는 것은 물론 경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해 이용객 편의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부권에서도 국도 77호선 마지막 연결구간인 화원~신안 압해를 잇는 해저터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율 8%로 해저터널 2.73km 굴착을 위한 토공 작업 중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 화원~목포 달리도 구간 해저터널을 포함해 총연장 13.49km가 연결되면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해 관광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도 803호선인 목포구등대~양화간 도로가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화원 매월리를 시작으로 목포구등대~장수리~오시아노 관광단지까지 해안도로 약 23km를 잇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지난해 12월 준공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와 쌍축을 이루어 오시아노 관광단지, 기업도시 활성화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와함께 해남 마산-산이 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설계 진행 중이고, 해남읍에서 대흥사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2단계 사업이 착공하는 등 지방도 확충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 7기에 시동을 건 각종 SOC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민선 8기 해남의 미래 구상이 더 넓어졌다”며 “SOC 사업들을 기반으로 더 가까워진 해남이 서남부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지역문화 활력 촉진사업’ 10억 원 확보

강진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년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은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문화 인력 양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12일까지 총 6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최종 14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남에서는 강진군과 고흥, 곡성, 화순, 해남군이 선정됐다.

강진군은 ‘생활 속에서 즐기는 음악문화’와 ‘음악인들이 살고 싶은 음악도시 강진’을 핵심 주제로 4개의 사업을 제안했다.

지역 내 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강진문화하이로>, 문화예술인의 거주, 활동, 창작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강진, 살자>,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음악도시 강진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강진 문화 실험실>, 마을 문화 소제이스와 아트마켓, 포럼 등을 포함한 <하렘 문화예술 박람회>를 주축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강진=김영기 기자



“장흥군, 지역민 소득향상 6차 산업화로 풀어낸다”

장흥군이 지역 농·수·축·임산업의 6차 산업화와 품목별 집단화를 통한 지역민 소득향상 방안을 밝혔다.

농·수·축·임산업은 장흥군민 70%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 최대 기간산업이다.

장흥군은 지역 기반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농어민의 소득이 올라가고, 이는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은 먼저 생산·가공·유통·체계를 연계한 6차 산업화에 투자할 방침이다.

최근 농·어업 분야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농업 또한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관산을 삼산 간척지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최첨단 혁신블루 에너지 팜을 조성해 지역 특용작물과 고부가가치 품목을 육성한다.

계획이 현실화되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6차 산업의 농업 특화도시가 구축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면 지역 인구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다.

득량만 청정해역 갯벌산업특구를 활성화해

수산업 경쟁력도 높여 갈 계획이다.

장흥노력향은 대규모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을 유지하고 수산물 가공 및 유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그 첫걸음으로 노력향 일원에 올해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1000㎡ 규모의 저온 위판장을 신설한다.

새로 들어서는 저온위판장 시설은 저온 경매장, 활어 판매장, 식당 등과 어업인 휴게실, 회의실 등을 갖춘 예정이다.

군은 이번 시설이 완공되면 어업인 편의증대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 축산업은 장흥군의 청정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 축산업을 장려할 방침이다.

축산 시설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사육밀도 준수, 분뇨의 적정 처리 등을 통해 깨끗한 농장을 늘려나간다.

표고버섯과 햇고 등의 임산물도 지역별로 특화 생산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2016년 이후 전염병 없는 청정 지역 유지



진도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은 설 명절 전·후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의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귀성객들의 축산농장 방문 자제 등을 홍보했다.

또 가금 농장의 축사 내·외부 청소와 소독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 지도와 함께 예방을 강화하는 등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를 위해 방역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장 주변 소독 지원과 거점 소독시설·농장 조소를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역 활동으로 진도군은 2016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하지 않는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진도군 진도개축과 관계자는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 진도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완도호랑가시나무 숲 조성 ‘향토 수종 확대’

완도군은 지역 향토 수종 및 산업화 가능 수종 육성을 위해 매년 50ha 규모의 지역 특화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완도의 향토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 숲을 조성한다.

사업 대상지는 완도군 대신리와 군외면 영풍리, 고금면 청용리이다.

그중 군외면 영풍리 산183-2 일원(13ha) 영풍리마을숲에 사업비 2억5천만 원을 투입, 완도호랑가시나무 모종 3500주를 식재하여 숲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군은 매년 10ha 이상의 산림에 완도호랑가시나무를 식재하여 숲 규모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군에서는 특색 있는 녹색 경관을 제공하고 자 완도를 시가지 진입로와 완도수목원 진입로에 완도호랑가시나무 거리를 조성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오!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